

독서운동으로 출판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본

1만개에 가까운 자생적 독서클럽에 60만명을 넘는 열독회원들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독서운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웃는 일부 지식인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풀뿌리 독서운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것은 미래 독자를 육성하면서 출판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 출판의 잠재시장 규모는 독서환경의 토양과 지금 뿌리는 노력의 씨앗에 비례할 것이다. 일본의 풀뿌리 독서운동이 확산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해주는 좋은 본보기다.

세계 각국에서 독서 생활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와 학부모, 도서관과 서점이 나서는 다양한 활동은, 결국 독서의 가치가 개인과 사회의 풍요롭고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매년 어린이날이나 가을 독서주간이 되면 통과례적으로 “책을 읽자”는 구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독서가 생활화·제도화되지 못한 채 화석화된 캠페인에 그치고, 독서를 ‘운동’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지식인들의 비아냥과 불만도 적지 않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서는 가장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품이 드는 매체 이용 행위다. 때문에 독서는 도서관이나 학교교육과 같은 사회제도적 환경, 어릴 때부터의 습관화나 부모의 영향과 같은 가정 환경, 책이 생산·유통·소비되는 출판환경, 거기에 매스컴이나 책 관련 정보 등 독서욕구를 촉발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풍요로운 독서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각종 도서관을 만들어 좋은 책을 채우는 일이나(도서관 예산확보 운동), 입시 위주 교육제도를 개선해 청소년기의 독서가 일생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일(교육제도 및 독서교육 개선운동) 등 사안별로 심각한 각성과 지속적 운동(추진력) 없이는 안 되는 일 투성이 다. 심지어 ‘체력이 국력’이었던 시절에 체력은 강한 훈련 없이 길러지지 않는 이치를 터득한 우리가, 독서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독

서운동조차 외면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독서운동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독서 생활화다. 그런데 그간 우리 정부, 도서관, 출판계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국민들의 독서율과 독서량이 높아졌다는 말은 듣기 어렵다. 이는 개인적 자발성에만 호소해 왔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종 사회제도의 혁신과 함께 개인들을 모아 독서를 ‘자발적 조직’으로 엮어내는 독서모임이 턱없이 적었던 것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풀뿌리 독서운동이 활발한 일본을 통해 그 해법의 실마리를 살펴보자.

풀뿌리 독서모임의 정착과 어린이 독서운동

일본에는 현재 무려 1만개에 가까운 자생적 독서클럽이 있다. 여기에 가입한 열혈 독서인구는 60만명 이상이다. 대개는 지역 도서관들과의 강한 연계 속에서 도서목록을 자발적으로 정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중에는 일반적인 교양서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연구모임에 가까운 전문서 독서클럽도 있다.

최근 일본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화제를 일으킨 ‘업계 베스트셀러’인 사노 신이치(佐野眞一)의 《누가 책을 죽이는가》에도 소개된, 도쿄 초후(調布)시에서 활동중인 독서클럽 ‘아카데미-아이(愛)토피아’의 역사는 이미 30년이 넘었다. 회원수는 현재 3천명을 웃돌고, 16개 독서모임이 운영된다. 나아가 하이쿠(俳句)부터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생산하는 22개의 창작모

임, 일본의 고전인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나 단테의 《신곡》 등을 읽는 14개 연구모임도 별도로 운영된다. 하위 모임 숫자만도 50개 이상이다. 좋은 책을 선정하기 위해 모임 주재자는 인문서 출판사의 편집자들을 방문하기도 하며, 모임별로 유명 저술가들을 고문으로 초청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주요 방법은 다양한 장소에서 ‘책 읽어주기’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학급마다 이 행사를 여는데, 이들은 학급문고나 학교 도서관의 도서 정리도 병행한다. 공공도서관이나 아동관 역시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종이연극을 곁들여 책을 읽어준다. 비교적 뒤늦게 이 운동에 참여한 서점의 경우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구연동화나 노래를 곁들여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언론사, 독서운동단체, 출판사가 후원하고 전문교육을 마친 독서 어드바이저들이 활동한다. 자택에 ‘가정문고’를 열어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보건소 문고’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돼 확산일로에 있다. 특히 독서운동에 대해 《요미우리》나 《도쿄신문》 등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기사화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1971년 가정문고로 출발해 12년 뒤 단체로 설립된 ‘구마모토(熊本)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경우 회원수가 20~30대 주부를 중심으로 216명에 이른다.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구모임과 보육원이나 학교를 찾아 매년 70여 차례 개최하는 책 읽어주기 행사가 주요 활동이다. 철학자 초청 강연 내용을 직접 자비출판해 2만권 가까이 판매하기도 했으며, 기관지를 다량 발행해 홍보하

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어린이 독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독서법의 도입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게임 감각으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아니마시옹'(생명력 불어넣기)이라는 스페인식(창안자 몬세라 사르트) 독서교육법에 대해 각 학교와 도서관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 의무제와 기금조성 등 제도화 노력 해 이와 같이 자발적 풀뿌리 독서모임과 독서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출판계의 노력도 점차 고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학교도서관법 개정 등에 의해 12개 학급 이상의 모든 초중고교에

2002년 말까지 별정직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작년 한해 사서교사 발령자수는 초등학교 316명, 중학교 189명, 고등학교 116명, 특수학교 20명 등 총 641명에 이른다. 이런 정책은 교육제도 개편과 맞물려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내실화를 통한 획기적인 독서진흥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가가 정한 '어린이 독서의 해'를 치렀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도쿄 우에노(上野)에 '국립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 국회의 의원연맹은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을 제도화시키고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이며, '어린이 꿈의 기금'(당초 명칭은 국제어린이문화기금)이 이번 달에 창설되는 등 어린이 독서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감각과 독서욕구를 동시에 고취시키고 해외에 일본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어린이 꿈의 기금'은 세계 각국의 책들을 수집해 전국의 각 도서관에 제공하는 일과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그림책 번역판을 보급하는 일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청소년단체도 후원한다. 기금액 목표는 2천억엔(230억)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서 우선 100억엔을 지원받았고, 별도 기관운 영비만도 올해 20억엔을 지원받았다.

독서운동의 모체인 도서관의 활동영역 확장도 주목된다. 도쿄 초후 시립도서관은 지난월부터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희망도서를 자원봉사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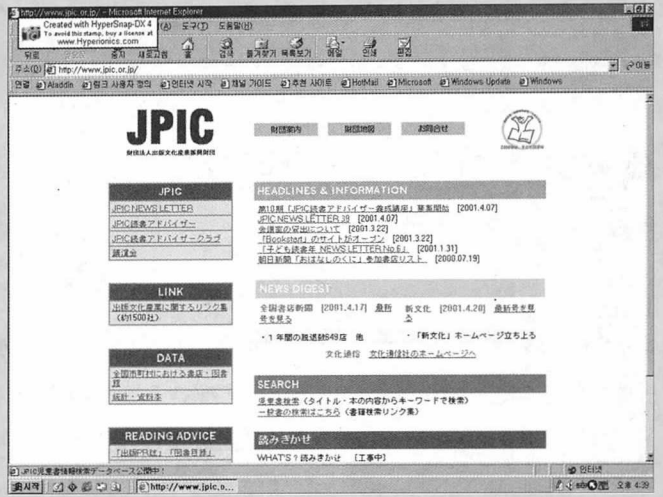
무료로 배달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또 병원 순회 서비스를 하는 공공 도서관도 생겨나고 있다.

출판계 차원의 독서운동 역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독서추진운동협의회는 1959년 결성된 독서운동단체로 전국 43개 연계조직(각 지방 독서추진협의회)과 함께 '독서주간'을 주관하는 등 독서추진 국민운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판

관련단체를 망라해 설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은 현재까지 약 1천명의 독서 어드바이저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독서 어드바이저 강좌는 수강생이 기수별로 60명 정도인데, 신청자는 매회 1천5백명을 웃돌 정도라고 한다.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판업계는 4년 전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어린이 책의 날'로 정하고 현재 전국 160여 서점의 호응 속에서 매장에서 책 읽어주기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또 출판도매회사 닛판(日販)은 이와 별도로 1999년부터 거 래처 서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월 1~2회 정기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마라톤' 행사를 개별 서점별로 열고 있다. 고단샤는 트럭을 개조한 '이야기 차'를 만들어 2년 전부터 전국 유치원, 보육원, 아동관에서 책 읽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독서운동은 미래 출판의 자화상

독서 저변을 넓히고 아동출판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판사들의 저가본 출판도 줄을 잇고 있다. 포푸라 출판사는 4년 전부터 일반 아동서의 1/3 가격에도 못 미치는 350엔에 세계명작 시리즈 60종을 출판해 200만부 이상 판매했고, 2년 전부터는 별도의 '350시리즈'로 창작그림책 등 50권을 발매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단샤 역시 2년 전부터 286엔짜리 그림책을 내고 있으며, 각켄(學研), 프 레베르칸 등도 저가가격의 우수한 아동서를 속속



독서운동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다. 사진은 독서운동 핵심역량의 하나인 독서 어드바이저의 양성 등을 통해 출판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 일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의 홈페이지(www.jplic.or.jp).

내고 있다. 1988년 고교 교사 하야시 히로시(林公)에 의해 시작된 '아침 10분 독서' 운동을 실시하는 초 중고는 현재 약 5천개교로 늘었으며,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운동은 출판도매회사 토한이 후원하고 있다.

명작을 눈으로 읽으며 테이프를 듣는 '말의 학교' 학원도 작년 말에 일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독서를 통한 집중력, 언어 구사력, 표현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강자수는 증가일로라고 한다.

독서운동은 미래의 독자를 육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출판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 출판의 잠재시장 규모는 독서환경의 토양과 지금 뿌리는 노력의 씨앗에 비례할 것이다. 독서운동은 결국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진다.

올해로 43회째인 일본 '어린이 독서주간'(4.23~5.12)의 금년도 표어는 "좋은 책, 좋은 얼굴,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 출판이 좋은 책을 많이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먼 훗날 스스로의 좋은 얼굴과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한 독서운동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새삼 되돌아보게 만드는 5월이다. 지난 5월 5일은 한·일 양국의 '소파 선 생활'이 만든 어린이날이었다.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는 된서리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왜곡된 독서운동의 자화상을 되돌아볼 때다.●